

“전북 자율주행기술 실현 종합대책 시급”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대부분이 평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율주행 실증에 유리 자율주행시대 구현 위해 기술 등 선행돼야”

자율주행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실생 활에도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전북도 중심의 자율주행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완전하고 성공적인 자율주행 실현을 위해서 현재 국내에서 집중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리빙랩, 규제혁신, 인프라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 도시교통 분야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자율주행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독일은 2021년 자율주행차의 빠르고 안정적인 상용화를 위해 도로 교통법 및 보험관련법을 정비했고 2022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승인·운행령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의 입법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도로교통, 지리적 여건, 인프라 현황, 시범사업 운영, 모델도시 실현 가능 부지 확보 등을 고려했을 때, 전북도가 자율주행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전망했다.

전북도는 대부분이 평지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율주행 실증이 유리한 환경이며, 이미 구축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있고 군산·익산 등 두 곳의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와 새만금이라는 모델도시 대상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수요응답형 셔틀(DRT), 버스 등 대중교통과 취약계층을 위한 자율주행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도입 환경 및 시행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책임인 김상엽 박사는 “완전한 자율주행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정책 규제혁신, 인프라, 도시 및 교통계획, 시민의식 전환 등 다수의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며, “성공적인 자율주행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시행가능한 전북도민의 대응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고 향후 교통 및 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서는 전북형 자율주행시대를 위해 △자율주행 중심의 공유·수요관리·대중교통중심의 정책 시행 △전북형 자율주행 리빙랩 조성·운영 △규제혁신 △전북광역모빌리티센터 기반의 맞춤형 인프라 △산학연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 △관광형 자율주행차 운행 확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미래 도시공간 연구 방안 등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자동차·교통·도시·ICT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학연 기관들과 협력해 전북형 미래 모빌리티 모델도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3일 원광대학교 컨퍼런스홀에서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농생명·바이오사업단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농생명·바이오 특화 인재양성... 지역소멸 대응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농생명·바이오사업단 발대식 5년간 386억 투입 푸드테크·디지털농업 등 중점

특화된 인재양성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생명·바이오 분야 지역혁신사업이 3일 원광대학교 컨퍼런스홀에서 출범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5년 동안 386억원이 투입돼 △푸드테크 △디지털농업 △바이오소재 △동물웰스케어 △라이프케어 등 5개 분야의 특화된 인재양성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식품과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전북지역에 특화된 인재 육성에 주력 이 분야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현장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농도의 정주 인력까지 확충하게

농생명·바이오 산업이 전북의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이에 농생명·바이오 중심대학인 원광대는 함께 참여할 군산대, 우석대, 전북대, 전주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와 협력해 이 분야의 창의적 인재양성과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이 같은 인력양성과 지원계획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디지털제어 △e-비즈니스 △차세대 바이오

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광대 박성태 총장은 “전북에 특화된 R&D(산업화연계기술개발)을 주도하는 맞춤형 지역특화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혁신사업(RIS)에는 이날 출범한 농생명·바이오 분야(중심대학 원광대)를 비롯해 미래수송기기(중심대학 전북대), 에너지신산업(중심대학 군산대) 등 3개 핵심 분야에 11개 대학이 분야별로 참여하게 된다. 올해부터 5년 동안 규제와 지방비 등 2,14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김포 서울 편입, 여당의 무책임한 도박”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향해서도 “입장·대안 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김포 서울 편입을 두고 “위험하고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찬반 입장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불리한 선거편을 흔들고 싶은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편을



“특별법 같은 입법 조치가 필요한 텐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 서울 편입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특별법 같은 입법 조치가 필요한 텐

데, 그것이 총선 이전에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 가까이 있는 곳을 죄다 거론하고 있는데, 서울을 공룡처럼 만들고 국가를 기본수로 비틀어 놓자는 것인가”라며 “그런 논리라면 실악도, 지리도 서울에 편입하자고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담당하지 않다”며 “여당의 의도에 밀려들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 소동이 멎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뉴스1

“새만금 예산 복원, 도민에 대한 예의”

민주 이원택 의원 “잼버리로 새만금 예산 빼먹었다는 주장은 도민 모욕주기”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파행을 겪고 있던 지난 8월 11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인석 의원은 “전라북도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전북도는 제사보내는 잼버리에 관심이 많았다. 이권 카르텔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잼버리 파행을 새만금 탓 전라북도 탓으로 돌려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은 전라선 북선전철 개통 등 11개의 도로·항만·철도에 10조원을 투입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22개의 철도·국도·지방도 SOC에 11조를 투입했고, 대회 유치 활동 중인 2030년 부산엑스포 SOC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복합개발, 부산형 금행열차 등에 2조 가량을 투입하려고 한다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8월 29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행사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공항·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인 1991년 착공해 2004년에 완공하기로 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며, “국책사업이 32년 동안 48%의 공적률은 새만금 사업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30년동안 지체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감을 불어 넣지는 못할망정,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전북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며, “새만금은 죄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즉각 복원 해라! 그것이 새만금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산시의회, 정례회 대비 역량강화 교육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3일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군산시의회 전체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된 의원 교육은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준비사

항 등 진행됐다.

서울시립대 의정정책고위과정 박노식 책임교수가 강사로 나선 강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무에 적용 가능한 행감 전략, 행감 중점 착안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으며, 의원들은 기존 계획된 강의 내용 외에 도 시정 현안 및 정책 자료 검토를

통해 공급했던 사항에 대해 강사와 의견을 나누며 실무적 역량을 강화해 갔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집행기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
www.buansuhyup.co.kr

부안수협이 모든 수산물 제품은
100% 국산 만을 사용합니다.

특허받은 뽕잎기술!

뽕잎간고등어

뽕잎으로 절여 비린내가 전혀없는 뽕잎간고등어!

뽕잎간고등어가 맛있는 이유

- 겨울철 참 고등어만 사용해 씹는맛이 다릅니다.
- 특허받은 뽕잎절임기술을 사용하여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가 없습니다.
-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가시를 발라내어 조리하시기 편리합니다.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시설공정으로 생산, 더욱 믿을수 있습니다.

조합장 송 광 복

식품의약품안전청 우수식품제조업체 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획득!

부안수산업협동조합
www.buansuhyup.co.kr

전국택배판매 063-584-3101~2